11/8/26

설교 제목: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

전하는 이: 김순배 목사

말씀: 마태복음 19 장 13-30 절

어린 아이들에게 안수하시다(막 10:13-16; 눅 18:15-17)

13 그 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14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15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재물이 많은 청년(막 10:17-31; 눅 18:18-30)

16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17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 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18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 하지 말라,

19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20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대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21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22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23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24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25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26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27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대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28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29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30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결혼과 이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은 직후,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안수하고 축복을 빌어주시길 바래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사람들을 꾸짖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병 고침을 받거나 축복 기도를 받기 위해 몰려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른들이 우선 순위에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에게 안수해 주십니다.
13 그 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14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15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저자 마태가 '그 때에'라고 때가 예수님이 결혼과 이혼에 대해 가르치신 직후임을 강조한 것은 어린 아이들이 신성한 결혼 생활의 고귀한 열매임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성한 결혼 생활의 열매인 어린 아이들을 인정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들이 비록 신체적으로 미숙하고 사회적인 지위가 없을 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인격체로 여기시고 하늘의 백성이 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신 까닭을 천국이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천국은 어린 아이와 같이 순결하고 순수하며,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뒤이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 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계명을 모두 준수했다고 자부하는 많은 재물을 소유한 청년이었지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청년은 예수님께 나아와 자신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 묻습니다.
이 청년은 자신이 무슨 선한 일을 함으로써 영생이 얻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로, 선하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16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17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 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청년이 예수님을 자신의 문제를 능히 해결해 줄 수 있는 선생님이라고 인정하고,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를 묻자 예수님은 "선한 이는 오직 한 분 이시니라"라고 대답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에게 흠이 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선하다'는 말을 당신과 연관해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청년의 잘못된 신앙관을 지적하기 위해 사용하신 것입니다.
청년이 예수님을 선생으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청년의 수준에 맞추어 인간은 하나님 앞에 도무지 선할 수 없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만이 그리고 하나님의 일만이 유일하게 선한 것임을 지적함으로써 인간은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할 수 없고 자신을 선하다고 말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청년이 영생을 얻기 위해 해야 할 선한 일은 바로 하나님의 존재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분이 명하는 바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구원이 믿음의 도에 의해 이루게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다른 바리새인들처럼 자신의 공적에 의해 의롭게 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란 모세의 십계명을 문자 그대로 맹목적으로 지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계명의 원 목적을 온전히 이해하고 그 뜻대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계명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속에는 이미 생명의 약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킴으로 인간은 영생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길 속에는 계명의 명령자이신 하나님과 그 계명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대로 따르는 것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어떤 계명을 지켜야 하는지 묻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율법에 수많은 보조 조항들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자신이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고 자부하면서도 혹시 자신이 모르고 있는 또 다른 지켜야 할 계명이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18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 하지 말라,
19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청년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십계명에 나오는 인간 관계와 이웃에 대한 태도를 규정하고 있는 계명들을 언급하십니다.

예수님이 심계명 중 1-4 계명을 언급하지 않으시고 5-10 계명을 언급하신 이유는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시관들이 5-10 계명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고, 그들에게 교율을 받은 이 청년도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청년은 율법을 모두 지키긴 했지만, 구원을 받을 만큼 충분히 선한 일을 행하지 못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구원의 확신이 없었고, 영혼의 불안과 궁핍을 느끼며 살고 있었습니다.

20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대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님께서는 청년에게 가진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준 후 당신을 따를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청년의 마음이 재물에서 해방되는 그 순간부터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늘에서 보화'란 이 청년이 찾아 헤매는 영생입니다.

21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22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런 규정은 구약의 어떤 규정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럴지라도 예수님은 사람이 재물과 하나님을 함께 온전히 섬길 수 없음을 잘 알고 계셨기에, 이 부유한 청년이 자신의 재물로부터 해방되고 진정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신 것입니다.

가서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궁극적으로 예수를 따르는 제자직으로 연결됩니다.
즉 하나님의 뜻, 계명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참 생명의 주인이시요 인간을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명령은 다가오는 천국에 대한 임박한 종말 의식을 갖고 있는 않은 사람에게는 도저히 실천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행하게도 청년은 영생을 보장하는 방법으로써의 물질 포기에 대한 예수님의 제안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떠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재물과 탐욕이 천국에 들어가는데 얼마나 큰 장애물이 되는지를 경고하십니다.

23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24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부자나 가난한 자나 상관없이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의지하는 자는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부자의 경우 그것에 의존하는 정도가 가난한 사람에 비해 크기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청년에게 재물을 포기할 것을 명령하시며 부자에 대해 경고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 부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가난과 빈곤은 하나님의 저주를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전혀 새로운 사상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청년에 비해 나은 것이 없는 자신들 역시 구원 받지 못하게 된 것이 아닌가 염려하며, 예수님께 그 청년이 하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구원은 인간이 무엇을 하여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주시는 선물임을 언급하시며, 회의와 절망에 빠진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제자들로 하여금 새로운 믿음과 소망을 품게 하십니다.

25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26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불안을 느낀 제자들을 대표해 베드로가 나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른 자신들은 영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27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대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28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예수님은 당신이 심판 주로 보좌 위에 앉으실 때 제자들도 보조 심판자로서 당신과 함께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게 될 것을 약속하심으로 제자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십니다.

더하여 예수님은 구원의 범위를 열두 제자이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한 모든 제자들에게까지 확장하십니다.
29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30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에수님의 길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실 미래의 유업과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는 어린 아이들에 관한 이야기 바로 뒤에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배치하여 천국에 들어갈 자와 들어가지 못할 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대조하여 보여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회적으로 아무런 지위나 힘이 없고, 자신의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는 존재가 아닌 어린 아이들을 기쁘게 받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자신의 능력이나 공로를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린 아이처럼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부자 청년은 영생을 원했지만, 영생보다 자신의 재물을 더 사랑했기에 결국 자신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당신을 따르라는 예수님 말씀을 거절하고 돌아섰습니다.
영원히 보장 될 미래와 영광을 포기하고, 눈 앞에 보이는 현재의 안락함과 안전을 선택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 제자들에게 재물이 천국에 들어가는 데 얼마나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는지를 경고하시며,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고 선언하십니다.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버리고 당신을 따른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광스런 상급과 유업을 약속하십니다.
주님을 위해 포기한 것들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며, 주님을 따르는 삶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다는 사실을 확증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길에는 희생과 포기가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결코 헛된 길이 아닙니다.
그 길 끝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과 하늘의 유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세상의 것들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어린 아이와 같은 겸손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과 하늘의 유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